

과학경영과 패기로 IMF 극복하는 진철농장 최영길 사장

IMF가 물고온 파장은 국내 어느 업종에서든지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고도의 실업사태와 실질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계속되는 금융혼란 등 전국 어느 구석구석을 막론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전국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작금(昨今)의 실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계층도 있어 실로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이중심정이라 하겠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다. 지금의 어려움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더욱 이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현재의 거름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IMF 이후 양돈산업도 많은 변화가 있음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현장에 가보면 양돈을 포기한 것인지 잠깐 유보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경기가 좋아질 때만 바라보고 예전의 불황 뒤 호황을 꿈꾸는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이다.

어려울수록 백신접종, 후보돈 적기 도입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는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내농장의 생산성적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할 것이다. 규모의 대형화 보다는 내실 있는 양돈장을 경영하는 농가만이 앞으로 IMF시대 이후에 생존가능한 농가이며, 이들이 앞으로의 국내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물들이 될 것이다.

철저한 생산관리와 치밀한 경영 분석으로 생산성 극대화

33세의 나이에 모든 80두 규모의 양돈장을 과학경영과 패기로 성실히 경영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소재 진철농장 최영길 사장을 만나 보았다.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최영길 사장도 IMF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는 국내 양돈농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사료값이 40% 이상 폭등했을 때도,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했을 때도 다른 양돈농가들과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최사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 자신감은 바로 철저한 생산관리와 치

밀한 경영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올해 저희 농장의 전체 돈군 사료요구율이 2.56으로 나오더군요. 올해 8월말까지 생산원가를 분석해보니 돼지 한근당(600g) 생산비가 980원(돼지 100kg 기준 약 16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내린 사료값을 적용하니 생산비가 920원(돼지 100kg 기준 약 153,000원)까지 내려가지 됩니까? 계산상으로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최사장이 웃으며 한 말이다.

최사장은 농장 번식돈 관리를 전문 컨설팅 업체인 한별 피그클리닉(원장 : 이재춘)을 통해 자문 받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관리는 직접 계산하며 연구한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활용은 최사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농장경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초 장기 생산성 향상 보다는 생산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최영길 사장은 지난 87년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90년부터 양돈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전에는 부친께서 양계를 하셨기에 양계를 할 생각도 가졌었지만 노력한 만큼 생산성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양돈업에 매료를 느끼고 철저히 계산해 본 결과 양돈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 아래 처음 돼지를 입식하여 양돈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사장은 처음 농장을 시작할 때 생산성 측면 보다는 돼지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조건 아끼기 위해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처음



▲진철농장 최영길 사장(우측)과 부인 이경옥씨, 최사장은 부인 이경옥씨와의 사이에 귀여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후보돈을 구입할 때에는 기존의 종돈장의 돼지는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주변의 일반 비육농장에서 후보돈을 선발하여 구입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종돈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떨어지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비용 절감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지양한 PSY 관리 기록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던 중 최사장은 지난 94년부터 전문 컨설팅업체인 한별 피그클리닉과 계약을 맺고 체계적인 번식돈 관리와 경영진단 등을 통해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처음 시작할 당시의 경영방침이었던 비용절감 경영을 지양하여 생산성 향상 측면으로 경영마인드를 바꾸고 종돈구입을 전문종돈장과 계약을 맺어 후보돈 도입을 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한 결과 최근 몇 년 동안의 농장 PSY가



▲최사장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활용을 통해 농장경영에 적극 활용한다.

23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철농장의 모돈 규모는 80두 수준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비육돈에 대하여 올 인-올 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최영길 사장은 비육돈사에서 올 인-올 아웃 방식을 채택하여 사양관리를 하다 보니 위축돈 발생이 거의 없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낮추었을 뿐 아니라 돼지의 출하일령이 이전보다 약 1주일 정도 빨라졌다고도 한다. 그 이외에도 철저한 임신진단과 100% 백신접종, 인공수정의 도입 등도 최사장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관리에 경영 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나름대로 최대 노력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분뇨는 분리하여 노의 경우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분은 농장 주변의 시설채소 농가에 수분조절제를 대주고 가져갈 수 있게 해주어 분뇨를 처리하는데도 그리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있었다.

양돈장 규모가 아닌 내실 있는 소득증대를 목표로

“제가 양돈을 처음 시작할 당시인 90년도에는 양돈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 올해에는 돼지 1두당 순수익 2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사장은 10월 양돈 대란설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한 입장이다. “소리가 크면 별로 안 아프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리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10월 대란설에 대해

일축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최사장은 현재 1두당 순수익이 2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정상시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높이 유지했을 때 가능하다며 뜻밖의 요인에 의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못냈을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저마진 시대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최사장은 단기적으로는 IMF 체제를 슬기롭게 넘긴 후, 그 다음으로 전체 돈군을 대상으로 올 인-올 아웃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돈사부터 시작하여 분만사 등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돈 200~250두 정도로 증식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가 좋든 나쁘던 간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돈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라며 “양돈장의 규모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가가 중요하다”는 최사장은 부인 이경옥씨(30세)와의 사이에 귀여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취재 : 이병석> **養豚**